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본회 양계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개발대책 회의 개최

본회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심하여 단기 발전방안으로 양계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체에 본회가 구심점이 되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양계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코자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수원 라비돌 리조트에서 본회 오봉국 고문을 의장으로한 정책개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각 업종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통으로 질병 방역·위생, 전산화 및 정보화까지 폭 넓은 안전이 제출되어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 수준으로까지 양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육계 수출기반 모색으로 돌파구 마련

국내 기반 강화에 초점 맞추어야

금년 6월까지 수입된 닭고기는 총 23,422톤으로 전년에 비해 5.6배가 증가하여 자칫 국내 육계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6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들은 닭고기의 수입이 증가한 만큼 육계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 시장을 겨냥하여 육계업을 수출산업으로 질적인 수준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용도계장, 종계장, 부화장을 지원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계열주체들이 수입에 적극 가담하는 것도 제제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뉴캐슬병(ND) 발생 증가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과거와는 달리 백신접종을 하여도 뉴캐슬병의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양계농가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란계는 가금티푸스와 함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질병으로 최근 몇년간은 백신을 철저히 접종하면 발생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요즘에는 이 원칙이 잘 맞지 않아 새로운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준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1999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전개란 주제로 개최될 박람회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시행사, 축산인대회 및 종합학술행사, 소비홍보행사, 우수축산인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새로운 2천년대에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되어 위기에 처한 한국축산업의 위상을 재조명 하게 된다. 현재 각 공동주체 단체별로 부스 유치와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스유치는 400개가 넘을 것으로 그간의 문의 결과를 토대로 예견하고 있다.

양계산물 유통시 냉장보관 필요

신선도 및 안전성 확보 위해

달걀과 닭고기 유통시 가급적 생산 즉시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수입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당일 공급이 어려운 산물에 대하여는 가급적 저온 보관을 하여 신선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의 경우 양계산물이 실온에 노출되어 운송이 되거나 보관이 된다면 신선도가 저하되거나 유해 병원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비둔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냉장육과 냉동육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유통이 되고 있어 수입육의 국내 시장 접근이 쉬웠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수입산물의 국내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온도가 높고, 낮은 때와 냉동과 냉장육의 구별 판매제가 정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양계산물 가격

생산증가와 소비부진으로 하락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닭고기 및 계란의 농장출하 가격이 근자에 없는 약세를 보임에 따라 신속한 생산조절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육계가격은 초복 이후 급락을 하여 하이의 경우 kg당 가격이 700원선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병아리 가격도 동반 하락하여 370원에 고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원대까지의 거래가 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워낙 기대심리가 높아 입추량이 많았고, 수입된 닭고기가 많이 방출되어 가격상승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란도 5월 환우계군이 생산에 가담하였고, 꾸준히 초생추 입식량이 증가하여 당분간은 약세권에서 머무를 전망이 나와 업계를 어둡게 하고 있다. **양계**